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08 Vol 4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4 F. 055-713-7093 www.gnwff.or.kr

이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분석과 정책 제안[1)]

01. 조사 개요

02. 주요 지표로 살펴본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

03.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서문에 따르면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뜻하며,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명시함
- 즉, 건강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젠더'를 중요한 렌즈로 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
- 성인지적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여성 건강에 대한 전략목표가 채택된 이후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2000년대부터 성인지적 건강정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를 대과제로 제시함
-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아직 성인지적 건강정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남도민의 건강 현황 관련 성별 데이터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에서도 건강정책에 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건강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해 경남 현황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01. 조사 개요

조사 방법

-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건강 관련 기존 통계자료 활용하여 경남 지역의 건강 관련 현황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살펴봄

조사 내용

- 건강수준,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여건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살펴보며, 각 통계의 출처 및 지표 정의는 <표 1>과 같음

1) 본 보고서는 2024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한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표 1 지표 정의

조사영역	조사문항	통계 출처	지표 정의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신체건강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비만율(자가보고)		• 체질량지수(kg/m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자살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냄
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 여건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
	암 검진 수검율		•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 우리 동네 의료서비스 여건에 만족한다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정의는 질병관리청(2024: 220~228) 참조,
「사망원인통계」와 「건강검진통계」 지표 정의는 국가통계포털(KOSIS) 참조

02. 주요 지표로 살펴본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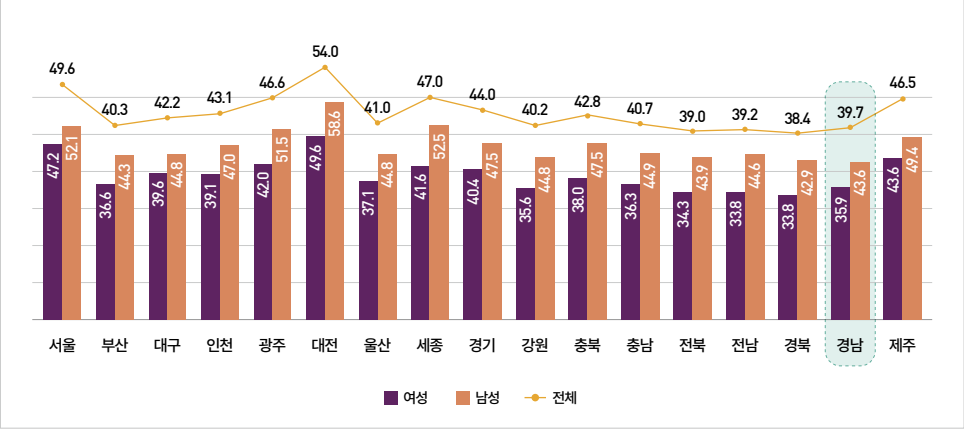
1 건강수준

» 주관적 건강인지율

- 평소에 본인의 건강을 좋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남도민 중 39.7%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낮은 편임
- 경남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5.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경남 남성은 43.6%(16위) 모두 하위권임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54.0%)이 가장 높고 경북(38.4%)이 가장 낮음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세종(10.9%p)이 가장 크고, 서울(4.9%p)이 가장 작음

그림 1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역별·성별 현황(2023년)

(단위: %)



주: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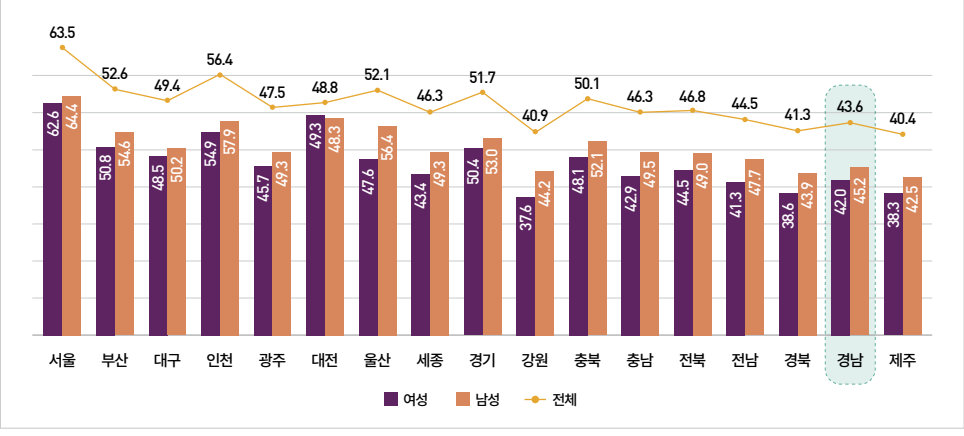
2 신체건강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43.6%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낮은 편임
- 경남 여성의 걷기 실천율은 42.0%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경남 남성은 45.2%(14위)로 모두 낮은 편임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의 걷기 실천율(63.5%)이 가장 높고 제주(40.4%)가 가장 낮음
- 걷기 실천율은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울산(8.8%p)이 가장 크고, 대전(1.0%p)이 가장 작음

그림 2 걷기 실천율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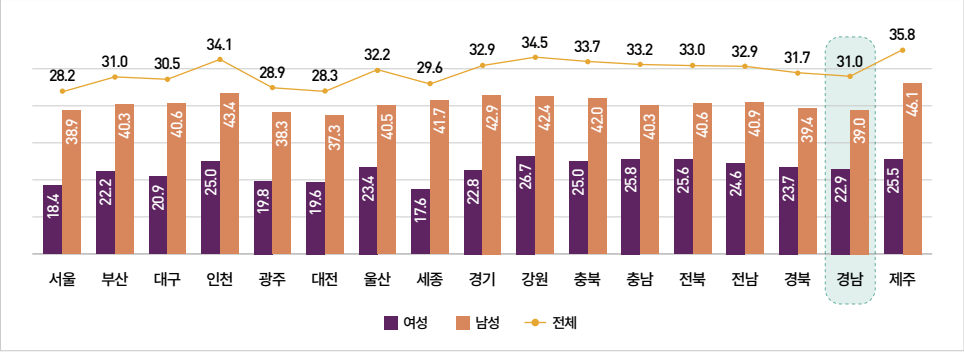
주: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 비만율

-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직접 기입한 수치로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서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 경남은 31.0%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로 낮게 나타남
- 경남 여성의 비만율은 22.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여덟 번째로 낮고, 경남 남성은 39.0%로 네 번째로 낮게 나타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28.2%)의 비만율이 가장 낮고, 제주(35.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비만율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세종(24.1%p)이 가장 크고, 충남(14.5%p)이 가장 작음

그림 3 비만율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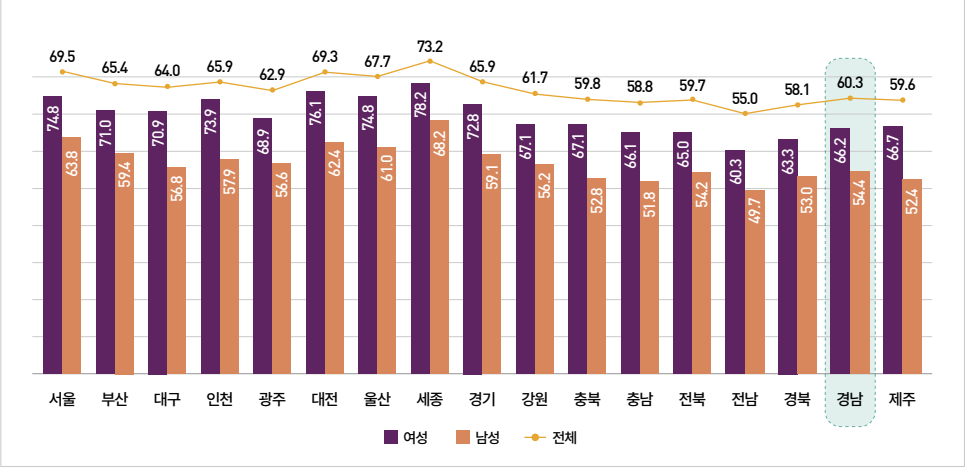
주: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한 것으로,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체중조절 시도율

-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60.3%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여성의 체중조절 시도율은 66.2%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경남 남성은 54.4%(11위)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의 체중조절 시도율(73.2%)이 가장 높고, 전남(55.0%)이 가장 낮음
- 체중조절 시도율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인천(16.0%p)이 가장 크고, 세종(10.0%p)이 가장 작음

그림 4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역별·성별 현황(2023년)

(단위: %)



주: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신체건강 지표 종합분석

- 신체건강 관련 지표들이 건강한 지역은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등으로 이 지역은 걷기 실천율, 비만율, 체중조절 시도율이 모두 건강한 편으로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걷기 실천율이 낮은 제주, 강원, 경북은 비만율, 체중조절 시도율 등 다른 건강 지표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은 걷기 실천율은 하위권, 비만율은 중위권, 체중조절 시도율은 하위권으로 비만율을 제외한 신체건강 관련 지표들이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신체건강 지표 지역별 현황

구분	건강 정도	건강함															건강하지 않음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걷기 실천율	높을수록 건강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기	충북	대구	대전	광주	전북	세종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비만율	낮을수록 건강	서울	대전	광주	세종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울산	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인천	강원	제주
체중조절 시도율	높을수록 건강	세종	서울	대전	울산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충남	경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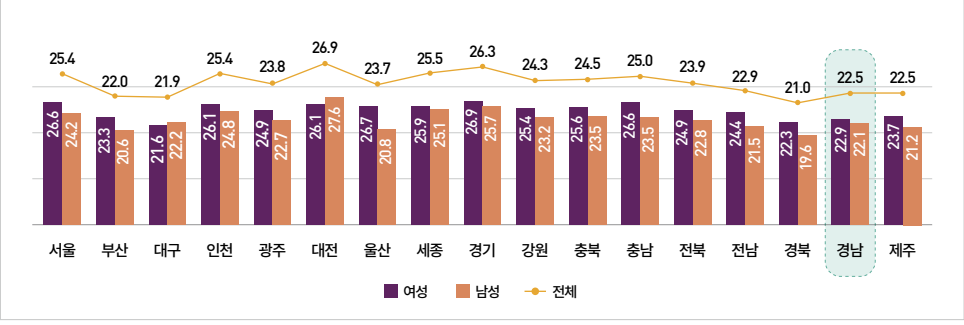
3 정신건강

»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22.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낮은 편임
- 경남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2.9%로 15위, 경남 남성은 22.1%로 12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의 스트레스 인지율(26.9%)이 가장 높고 경북(21.0%)이 가장 낮음
-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울산(5.9%p)이 가장 크고 대구(0.6%p)가 가장 작음

그림 5 스트레스 인지율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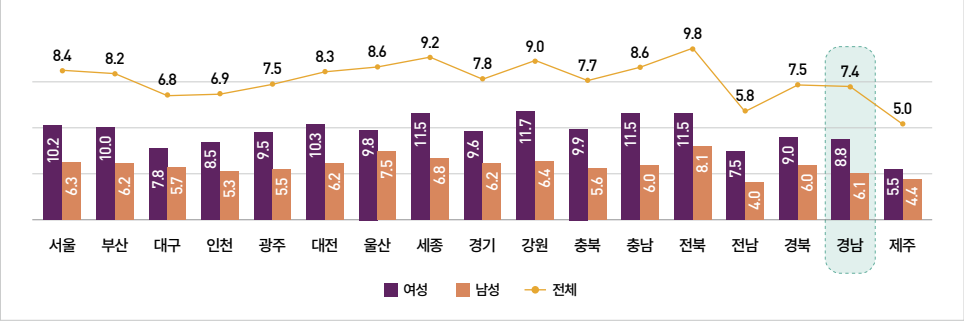
주: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7.4%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낮은 편임
- 경남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은 8.8%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경남 남성은 6.1%로 9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의 우울감 경험률(9.2%)이 가장 높고 제주(5.0%)가 가장 낮음
- 우울감 경험율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충북(5.5%p)이 가장 크고, 제주(1.1%p)가 가장 작음

그림 6 우울감 경험률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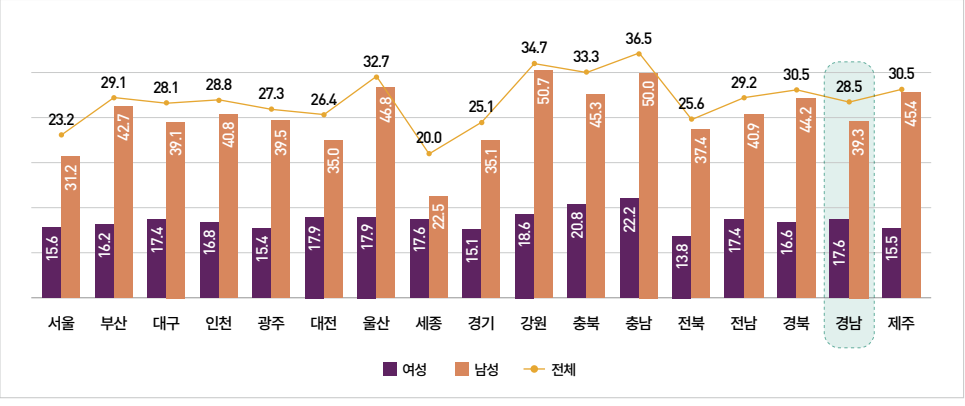
주: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자살 사망률

- 연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 사망률(십만 명당 인원수)을 살펴보면, 경남의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로 낮은 편임
- 경남 여성의 자살 사망률은 17.6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위, 남성은 39.3명으로 11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의 자살 사망률(36.5명)이 가장 높고 세종(20.0명)이 가장 낮음
- 자살 사망률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는 강원(32.1명)이 가장 크고, 세종(4.9명)이 가장 작음

그림 7 자살 사망률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십만명당 명)



주: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3년)」,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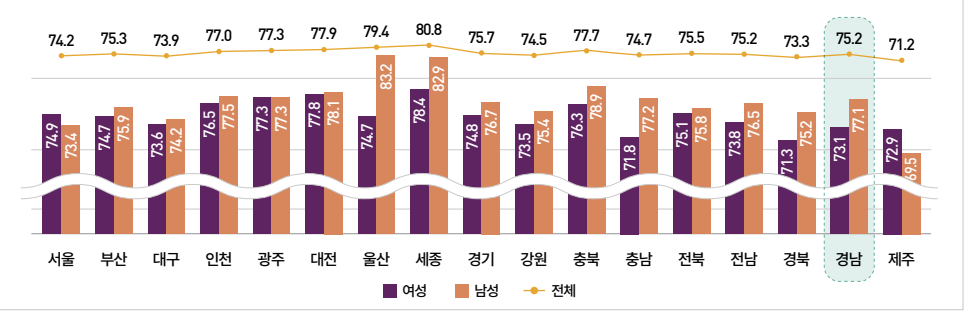
4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여건

건강검진 수검율

- 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강검진 수검율을 살펴보면, 경남은 75.2%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73.1%로 14위에 해당하고, 경남 남성은 77.1%로 8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의 건강검진 수검율(80.8%)이 가장 높고, 제주(71.2%)가 가장 낮음. 건강검진 수검율은 세종, 울산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높고, 제주와 같이 자영업 위주의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남
- 건강검진 수검율은 제주와 서울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광주는 남녀 동일하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8.5%p)임

그림 8 건강검진 수검율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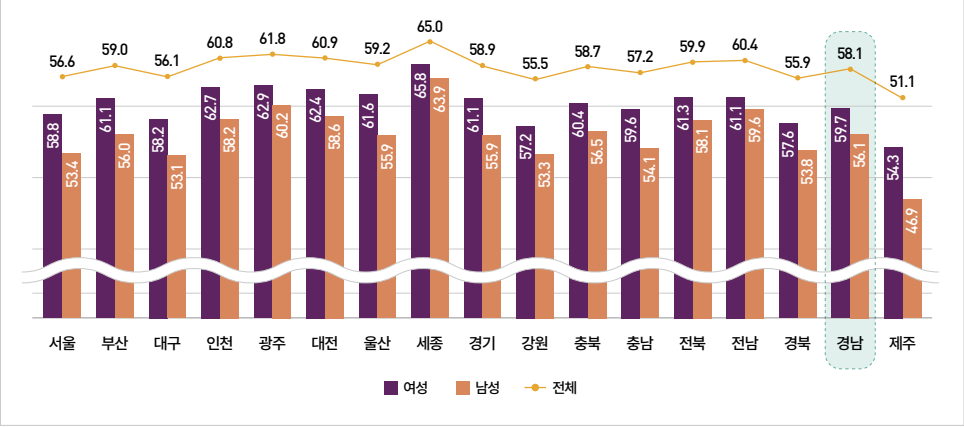
주: 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

암 검진 수검율

-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암 검진 수검율을 살펴보면, 경남의 암 검진 수검율은 58.1%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에 해당함
- 경남 여성의 암 검진 수검율은 59.7%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 경남 남성은 56.1%로 8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의 암 검진 수검율(65.0%)이 가장 높고, 제주(51.1%)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암 검진 수검율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성별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7.4%p)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1.5%p)임

그림 9 암 검진 수검율 지역별·성별 현황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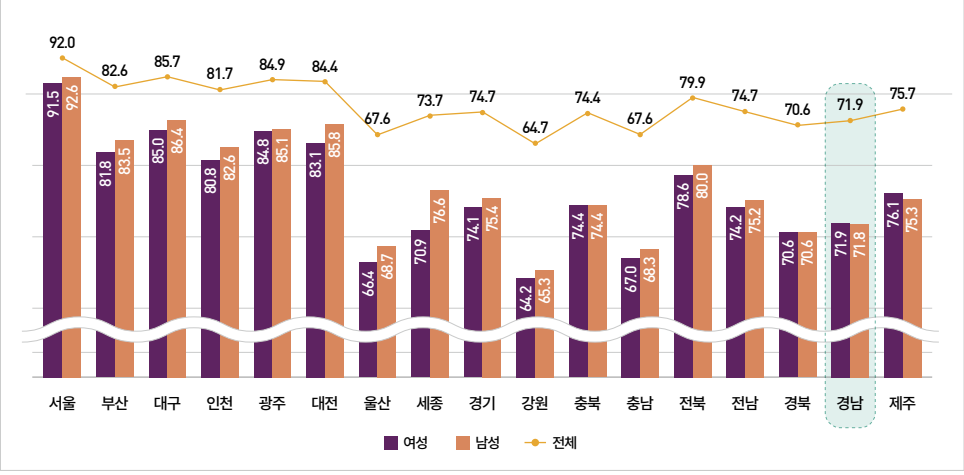
주: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비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

-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경남도민의 71.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경남 여성의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는 71.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경남 남성은 71.8%로 13위에 해당함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의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92.0%)가 가장 높고, 강원(64.7%)이 가장 낮음
-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경남(0.1%p)과 제주(0.8%p)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고, 다른 지역은 남성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 지역별·성별 현황(2023년)

(단위: %)



주: 우리 동네 의료서비스 여건에 만족한다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3년)」, 원자료 분석.

03.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1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 요약

- 건강 관련 주요 지표를 통해 경남의 성별 건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남은 비만율, 체중조절 시도율, 자살 사망률, 건검진 수검율, 암 검진 수검율은 중위권이고, 주관적 건강인지율, 걷기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의료서비스 여건 만족도는 하위권으로 나타남
- 이중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사망률은 낮을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경남은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중하위권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경남 건강 현황 요약표

구분	건강수준	신체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여건		
	주관적 건강 인지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체중조절 시도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사망률	건강검진 수검율	암 검진 수검율	의료 서비스 여건 만족도
순위	하위권 (14위)	하위권 (14위)	중위권 (11위)	중위권 (11위)	하위권 (13위)	하위권 (13위)	중위권 (10위)	중위권 (10위)	중위권 (11위)	하위권 (13위)
건강 정도	하	하	중상	중하	상	상	중상	중하	중하	하

*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 자살 사망률은 순위가 낮을수록 건강함을 의미함

2 경남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 여성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 경상남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번째로,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2025.1.2. 제정)
- 조례에서는 4년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이 되도록 해야 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 관련 주요 지표들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경남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성인지적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 여성의 건강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여성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시 필요
- 여성건강 관련 실태조사는 주로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2024년 12월 기준 광주(2014년, 2021년), 대구(2014년), 충남(2014년, 2022년), 경기(2017년), 울산(2024년) 등에서 여성건강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었음
- 경남에서도 18개 시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건강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여성의 직업 및 사회적 상태에 따른 건강 이슈 적극 발굴 필요